

# 강진 청년 80% “현재 삶에 만족”… 60%는 미혼

### 군-호남통계청 협업 ‘19~45세’ 일자리·복지 등 81개 항목 설문자가 주택 소유 21% 불과…월 소득 200만원~300만원 37.3%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빈집 리모델링 제도 등을 펼친 강진군에 사는 청년 10명 중 8명은 강진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강진군이 최근 공표한 ‘2023년 강진군 청년통계’ 자료에 담겼다. 강진군은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체만 19~45세 청년을 대상(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6개 부문 8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강진군 청년 인구는 679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미혼’은 59.6%로 나타났다. 강진 청년들의 60%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고, 25.8%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청년 5명 중 1명꼴(21.4%·1454명)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년 건축물 소유 인구는 294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3%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이 가진 건축물 수는 363동으로, 이들 가계대는 ‘1000만원 미만’이 57.6%로 가장 많았다. 청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37.3%로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했다. 월평균 소비액은 ‘100만원~200만원 미만’(36.2%)이 가장 많았다. 강진군 청년 취업자는 3700명으로, 고용률은 73.1%를 기록했다. 취업한 청년들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0.2%)’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하며, 주요 종사 직업은 ‘사무종사자’(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함’

(79.6%), ‘보통’(18.6%) 순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평균 만족도 점수는 6.9점으로 강진군 전체 평균 점수인 6.6점보다 0.3점 높았다. 강진군의 청년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취업상담 알선’(39.5%)을 꼽았다. ‘2023 강진군 청년통계 보고서’는 내년 1월 중 읍·면사무소와 지역 관계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계는 강진군 내부 행정자료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 통계청 데이터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강진군은 올해 최초 수집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집계해 공표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좋은 정책은 주민의 생활과 실상을 제대로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청년통계 결과를 통해 수요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층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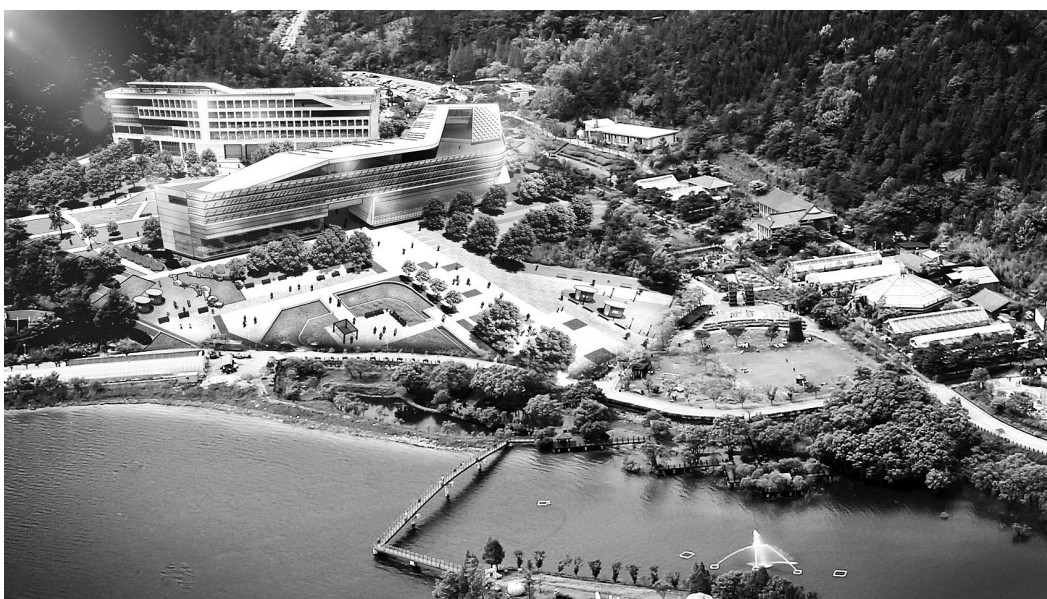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가 청년 농업인 사업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강진군>

## 함평에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 2028년 개원

### 교통안전 체험시설 등 건립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함평에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함평군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정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돼 오는 2028년 함평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 자연생태공원 내에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2024년 정부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임직원 3000명, 전국 52개 조직, 교통안전·교육·방송·운전면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대규모 기관이다. 교통안전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공단 임직원 교육은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하는 교육시설과 교통안전체험 등 체험시설, 트라우마센터 등 치유시설이 마련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조감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함평군은 연평균 약 5만 명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교통안전교육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시, 내년부터 ‘100원 택시’ 운행

### 대중교통 노선 개편…70세 이상 주민에 매달 쿠폰 6장 지급

나주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을 매달 6장씩 지급한다. 나주시는 최근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관련한 2차 개편 사항을 작음·시행했다. 내년부터는 나주 읍면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마을까지 갈 때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차액은 나주시가 예산에서 지급한다. 시내-마을버스 환승의 경우 기존 1시간 이내 2회 환승 체계에서 내년부터 ‘2시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대상자 본인이 거주지 이동장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 급행 01번과 영산포 급행 02번을 ‘급행 01번’으로 통합하고 일부 노선은 폐지하거나 변경·운영한다. 급행01번은 영산포터미널에서 출발해 영강사거리-대덕아파트(영산포)-KTX나주역-나주시청-문화예술회관-나주교-금성고-대방아파트(대호동)-나주터미널-금천사거리(호남월예고)-금천면행정복지센터-고동리-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전KDN-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실감미디어센터

-산포농협-산포입구-남평농협-유성그린 순으로 운행한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 이후 지난 두 달간 이용수가 가장 적었던 노안면 순환 61번 마을버스 노선도 이날부터 폐지하고 ‘602번’ 시내버스(나주버스터미널-동신대학교-노안사거리-남산마을-현애마을-감정마을-광주 평동역)로 변경 운행한다.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을 운행하는 701번은 개편 전 운행 구간으로 복귀해 국립나주병원-산포 산재·화지 방면으로 다시 운행한다. 폐지되었던 중흥골드스파 행 702번 버스도 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평 정류장에서 운영을 재개한다. 이 밖에도 101번(나주-반남-공산), 201번(남평-다도-중장터-행산), 402번(다도-봉황-빛가람-나주-영산포), 403번(남평-봉황-영산포), 500번(나산-문평-다시-영산포-나주) 버스가 운행 시간표와 환승 연계 시간이 조정됐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과 관련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자동차-노선조정 안내)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연말 인사 앞두고 ‘술령~’

### 사무관급 2자리 한시기구로 폐지…김성 군수 “근무 태만자 대기발령”

장흥 지역 공무원사회가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술령이 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장흥군 산하 조직에 4급(서기관) 3명과 5급(사무관) 1명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로연수(정년대기)를 맞아 승진 인사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전남도 인사정책에 따라 사무관급 자리 두 곳이 한시기구로 폐지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소란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달 말로 서기관급 자리인 장흥읍장과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실장 3곳과 보건소 사무관 1곳 등 총 4자리가 공석이 된다. 하지만 6개월간 전문교육 이수 목적으로 파견된 장기교육 자리와 장흥버섯산업연구원 2곳의 사무관직이 한시 기구라는 이유로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인사정책에 따라 승진기회를 노렸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실속없이 빈수레만 요란한 꼴이 됐다’며 푸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 최근 김성 군수가 간부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불만으로 행정불신이 심각하다”며 “공직사회 쇄신차원에서 근무태만과 직무를 소홀히 한 사무관급 2-3명에 대해 대기발령(무보직)하겠다”고 밝히는 등 폭탄발언을 하자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군수의 이러한 발언이 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경고성 발언인지, 아니면 인사의 숲통을 트는 결단으로 이어질지는 인사결과를 지켜 봐야한다 것이 관계자들이 전하는 분위기다. 한편, 장흥군은 내년 1월 1일 자 인사를 오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첫발 뗐다

### 화순군,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 전철·노면전차 등 검토

화순군이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첫발을 뗐다. 화순군은 최근 광주 소재에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5일 밝혔다. 이 광역철도 건립 사업은 16.4km 구간에 걸쳐 너릿재-화순읍-화순전남대병원-백산단지지를 잇는다. 용역 보고회에는 구북구 화순군수와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김재복 ㈜태조엔지니어링 부사장, 전남도,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철, 노면전차(트램), BRT(급행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순군 특성을 고려해 가장 경제적인 차량 체계를 선정하고 노선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화순군이 최근 주 소재에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화순군 제공>

통해 광주~화순 간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와 인접한 화순군은 주거·업무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권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광역 교통난 해소와 장래 개발 계획을 고려한 광역교

통 구축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 사례, 국내 타 시도 사례를 면면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장성군, 황룡우시장 18억 들여 신축

1968년 개장한 황룡우시장이 새로 지어진다. 장성군은 전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공모사업인 ‘2024년 가족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황룡우시장을 신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성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가족유통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비 포함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1968년 황룡시장 안에 문 현 황룡우시장은 한 해 평균 8000마리의 소가 거래되는 장성의 대표 가족유통시설이다. 하지만 개장 50년이 지나며 오래된 시설 문제가 두드러졌다. 인근 주민과 상가의 악취·소음 문제도 잇따랐다. 새롭게 짓는 가족시장에는 계류장과 경매시설, 퇴비사 등 필요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거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강진 아동들에게 성탄절 꿈과 희망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등학교 13곳에 산타원정대 이벤트



강진원 강진군수 등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산타원정대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클로스를 만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강진읍 중앙로 일대에서 ‘아이들을 찾아서 학교로 간 산타 원정대’를 파견해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60여명으로 구성된 산타 원정대는 강진군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13개소를 찾아가 1200명의 학생과 병설 유치원생들에게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로 캐릭터 무릎담요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산타 원정대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위원은 “농촌엔 아이들도 적고, 문화적 환경이 열악해 산타는 교회를 가야 볼 수 있는데, 학교로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깜짝 이벤트도 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